

날짜: 5786 년, 8 월 6 일 (2025 년 10 월 28 일, 2025)

토라 문: 나아 가라

주제: 의로운 자의 두려움

창세기 14 장 14-15 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네 왕의 승리와 조카 롯의 포로 생활에 대한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드라쉬는 아브라함의 두려움 없는 태도의 핵심이 시편 112 편 7-8 절의 한 구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미드라쉬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제 네가 엘로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았노라"라고 말합니다. 테힐림 112 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찬양 받을 만하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므로, 미드라쉬는 이 시편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는 미드라쉬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전적인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엘로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암시합니다.

어쨌든 "엘로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조카가 포로로 잡혔다는 "나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을 표하지 않았으며, 다섯 왕에 대한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군사적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엘로힘은 아브라함에게 네 왕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러나 미드라쉬는 창세기 15 장 1 절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테힐림의 "그의 마음은 굳건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된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두려워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엘로힘께서는 아브라함이 네 왕을 물리친 후에야 이러한 안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과 네 왕과 맞선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논하는 미드라쉬 구절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페 토아르는 미드라쉬의 의미를 설명하며, 아브라함이 네 왕과 맞설 때 엘로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호와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전투에서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테힐림에서 "그의 마음은 굳건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이는 전투 중 아브라함이 엘로힘을 믿었음을 가리키며, "그의 마음은 확고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계속될 때는 여호와께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셨음을 가리킵니다.

크사브 소프는 이 미드라쉬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은 적과 맞설때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을 물리친 후에는 긴장이 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은총(승리를 허락하심)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었고, 내세에서의 보상이 고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테힐림에서 "그의 마음은 굳건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승리로 바라볼 때까지"라고 말하는 구절의 의도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적을 물리칠 때까지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물리친 그 순간에 그는 긴장합니다.

미드라쉬는 이 구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야 엘로힘께서 나타나 그를 안심시켜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권능자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네 왕과 전투를 벌였기에, 사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안심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친 후에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상급[내세]은 매우 크니라."

이 칭찬의 말씀을 나중에 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친 순간에 승리로 이끈 전쟁의 결과가 인생애에서 받은 복이되어서, 다가 올 영원한 세상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상급을 잃게 되었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샬롬.